

축산업계

소식

절대농지 4백50평이하 신고로만 전용가능 농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절대농지도 농업용 시설은 4백50평, 고정식 비닐 하우스는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발법 시행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상대농지중 4백50평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에만 전용이 가능했으나 4백50평 이하의 농업용 시설과 어업용 시설, 1천평 이하의 농업용 시설중 고정식 비닐하우스는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된다.

암탉 1마리, 계란 7개에 40만원 부당이득혐의로 영장

경북 영양에서는 토종닭을 훔친 10대의 부모로부터 파다한 보상금을 받아낸 닭 주인을 부당이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에서 기르는 암탉 1마리와 닭이 품고 있던 계란 7개를 훔친 것을 붙잡아 40만원을 받아냈다. 영장신청 이유는 토종닭과 계란값 3만3천5백원과 닭장 파손비 5만원 등 피해액 8만3천5백원 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은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냉장 돼지고기 일본수출 경쟁력 우위 무역진흥공사 일본 시장조사 결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냉동상태에서 냉장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수출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지적했다.

무역진흥공사가 대일수출 20개 유망품목에 돼지고기를 선정하여 일본시장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이 유리한 나라와 같이 냉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

사단법인 한국부화협회 정식 출범

7월25일, 농림수산부 허가

농림수산부는 지난 7월 25일 한국부화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허가했다.

한국부화협회는 부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초생추 조사통계 및 생산 조절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부화업자의 지위향상과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부화협회의 주요사업은 1. 부화업의 경영지도 사업 2. 부화장 관리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초생추생산 조사통계 및 생산조절사업 4. 초생추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 부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에 관한 사업 6. 부화장 위생에 관한 사업 7. 양계산물 소비촉진업무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 8.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부화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다.

는 덴마크, 대만,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여건을 이용해 냉장상태로 수송할 경우 수출물량의 상당한 증가와 함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큐슈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의 고속정기여객선, 비행기 항로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냉장수송체계를 정비하여 후쿠오카시 하카타항, 큐슈 모지항, 기존 부관정기항로의 시모노세키항을 통한 수출증대노력이 요망되며, 수출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자조금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본회, 양돈, 낙농육우협 공동 주최로



지난 7월16일 본회 및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자조금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축산회관에서 있었다.

현재 자조금제도 추진과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포함되어 시행령(안)이 마련, 공포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될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생산자 단체, 축협 등이 자조금사용 방법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어 의견접근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생산자 3개 단체는 전 생산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개발, 신

제품개발, 양축가 지도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와 축협은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에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미국에서 내한한 오빌 스위트 씨가 미국의 양돈산업 자조금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참석자는 생산자3개단체,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이인형과장, 축협 조사부 이신곤부장, 농경련 축산개발실 유철호실장, 충남대 농대 박종수교수, 강원대 축산과 이병오교수,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회장 등이 참석 자조금제도 활용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합치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축협 축산물 판매전담 주식회사 설립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자본금 10억원 출자

축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해 축산물 판매전담 주식회사를 금년내로 설립키로 했다.

이회사는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축협의 계열화 사업 또는 회원조합의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각종 생축을 수집, 운반, 도축, 가공 제품화하여 소매기능을 하는 축협직영 종합판매장을 비롯 회원조합 판매장, 지방가맹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기능은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최소화 도모, 축종별 계열화사업과 육가공공장 제품의 소비지 유통관리, 회원조합 판매장 운영사업의 전국체인화 주도 등이다.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축사시설 신축 금지

환경청은 환경보존위원회에서 대전, 경기, 충북 3개 시도 1구10군54개읍면을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2천8백31km²에 이르는 지역에 축사시설과 8백평 이상 사무실 건물도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또 연건축면적 4백㎡이상 숙박시설과 1일 5백 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신규설립이 전면 금지되고 상수원에서 먼 일부지역은 조건부로 허가된다.

농림수산부 하절기 가축방역 철저 당부 장마로 인해 모기매개성 전염병 우려

농림수산부는 계속적인 장마로 인하여 양축농가에서 예방주사, 소독 등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여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 전파 및 만연될 우려가 있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닭 류코싸이토준병, 돼지 일본뇌염, 소의 유행열, 아까바네병, 이바라끼병 등 모기매개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의 방충망 설비, 살충·소독 및 예방접종의 철저와 소의 바이러스성 설사를 일으키는 점막하리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테노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하여 기생충성, 세균성 감염증, 비감염성 설사증에 대한 예방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가축방역관과 가축질병예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양축가에 대한 지도 계몽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협중앙회 농산물 수출 전담회사 설립 자본금 20억원 출자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수출전담 자회사인 주식회사 협동무역을 설립하였다.

농협중앙회가 자본금 2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협동무역은 농산물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농산물가격 지지,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회사이다. 농산물 수출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부대사업 및 농자재 등 농업관련제품 도입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올해는 동남아지역에 사과, 배 등의 수출물량을 늘리고, 사과, 감귤의 대미수출을 추진하며 수출시

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련, 일본, 대만 협동조합과 구상무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특히 과잉생산된 농산물과 농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 제품의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축협중앙회 육계계열화사업 준비 군납물량으로 91년부터 실시 예정



축협 중앙회는 내년부터 육계계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축협은 수급안정과, 육계사육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계열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생산물량은 전량 군납용으로 출하한다. 축협이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동기는 최근 병아리 품귀로 군납 물량확보가 어렵고, 많은 양계농가가 축협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다.

계열화사업은 본회가 만든 육계계열화 표준계약서를 기본골격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하중량을 세분화하며, 고정금은 물론 성과금, 장려금을 지불하며, 전염병,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안정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존 축협사료를 이용하며, 종계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생산된 닭고기는 전량 군납물량으로 활용 예정이다.